오정해

제2회 세계아리랑 축전 10월 3일~5일 개최

‘희망의 아리랑’ 빛고을 적신다

뮤지컬 형식 주제공연 ‘빛골 아리랑’ 공연

아이돌 그룹 섭외…축제 정체성 혼란 우려

올해로 두번째를 맞는 광주세계아리랑축전이 오는 10월3일~5일 광주 시민들을 만난다.

광주세계아리랑축전 추진위원회(위원장 강봉규)는 27일 홀리데이인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부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가슴으로 함께 부르는 희망의 노래, 빛고을 아리랑’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10월3일~5일까지 금남로 민주평화의 광장(옛 전남도청 앞)과 금남공원, 광주문예회관에서 열린다.

3일간 매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10월 3일 하루 집중적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4일과 5일에는 주제 공연만 무대에 올린다. 예산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시비·국비 포함 9억원이다.

미술가 손봉채씨가 예술감독을 맡은 본행사는 3일 오후 6시45분부터 금남로 민주평화의 광장 특별 무대에서 열린다.

1부 ‘무등의 빛’에서는 The 광대,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과 교향악단이 ‘아리랑 환상곡’을 연주하며 오정해, 최인경이 함께하는 ‘광주 비나리’를 선보인다. 탤런트 최불암씨가 시낭송을 하고 개막 타고가 이어진다.

2부 ‘한민족 아리랑’에서는 오정해·유지숙씨 등 소리꾼들이 진도 등 국내 대표 아리랑과 연변 아리랑을 선보이며 사할린 등 동포들의 가슴 속에 흐르는 아리랑을 만나보는 ‘아리랑 영상쇼’도 준비돼 있다.

또 광주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과 내벗소리민속예술단이 함께 꾸미는 ‘지구촌 아리랑’, 광주시립소년합창단과 시립국극단이 참여하는 ‘희망의 판타지’와 ‘광주는 빛입니다’ 등을 만날 수 있다.

마지막 ‘아라리요’에서는 대중가수 공연과 아리랑 광대패와 주최측이 공모한 아리랑 춤사위 선정팀, 플래시몹팀이 어우러진 ‘한복·오방색 물결’을 만난다. 또 시민과 출연자들이 함께하는 ‘아리랑수월래’, ‘아리랑 난장’이 밤 10시 30분까지 이어진다.

이번 프로그램 중 대중가수들의 공연은 축제의 정체성과 전혀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재고해야한다는 지적이 많다. 주최측은 특히 관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틴탑’ 등 유명 아이돌 그룹의 출연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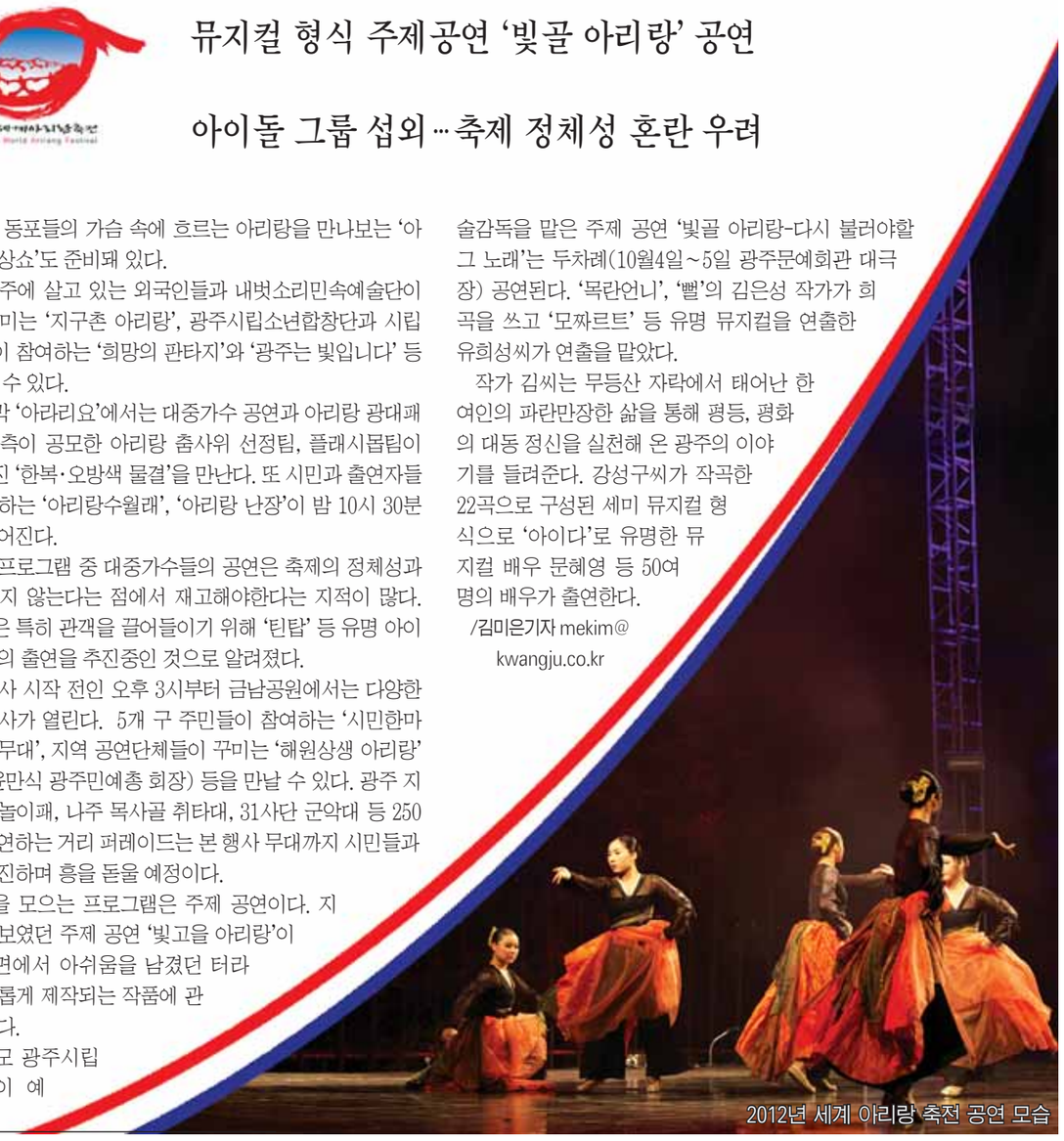
본 행사 시작 전인 오후 3시부터 금남공원에서는 다양한 사전 행사가 열린다. 5개 구 주민들이 참여하는 ‘시민한마당-5색 무대’, 지역 공연단체들이 꾸미는 ‘해원상생 아리랑’(연출 윤만식 광주민예총 회장) 등을 만날 수 있다. 광주 지역 풍물놀이패, 나주 목사골 취타대, 31사단 군악대 등 250명이 출연하는 거리 퍼레이드는 본 행사 무대까지 시민들과 함께 행진하며 흥을 돋울 예정이다.

관심을 모으는 프로그램은 주제 공연이다. 지난해 선보였던 주제 공연 ‘빛고을 아리랑’이 완성도면에서 아쉬움을 남겼던 터라 올해 새롭게 제작되는 작품에 관심이 높다.

박윤모 광주시립극단장이 예술감독을 맡은 주제 공연 ‘빛골 아리랑-다시 불러야할 그 노래’는 두차례(10월4일~5일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공연된다. ‘목란언니’, ‘뻘’의 김은성 작가가 희곡을 쓰고 ‘모짜르트’ 등 유명 뮤지컬을 연출한 유희성씨가 연출을 맡았다.

작가 김씨는 무등산 자락에서 태어난 한 여인의 파란만장한 삶을 통해 평등, 평화의 대동 정신을 실천해 온 광주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강성구씨가 작곡한 22곡으로 구성된 세미 뮤지컬 형식으로 ‘아이다’로 유명한 뮤지컬 배우 문혜영 등 50여명의 배우가 출연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2012년 세계 아리랑 축전 공연 모습

박진현의 문화카페

문화시민으로 살아가려면

지난달 24일 광주 문화계는 때아닌 수강생 유치전쟁을 치러야 했다. 사정은 이렇다. 공교롭게도 이날 광주 시립미술관의 ‘인문학으로 문화읽기’를 비롯해 일부 문화예술기관들의 시민강좌 일정이 겹쳤다. 겹치는 정도가 아니라 한날 한시(24일 오후 3시)에 열리게 됐다. 광주비엔날레의 문화포럼(강사·설치미술가 최정화)이 진행되던 시각에 광주문화재단에선 소설가 문순태씨의 문학강연이 열렸고 광주시립미술관에선 미술평론가 이건수(‘월간미술’ 편집장)의 현대미술 강좌가 개최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신들의 문화강좌로 수강생을 끌어 모으기 위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인 것이다. 특히 강사들 면면이 우열을 가리기 힘들어 주최 측에선 속이 탈 수밖에 없었다.

아니나 다를까. 강좌가 열리기 2주일 전부터 이들 기관들은 이메일, 전화, 문자메시지, SNS, 심지어 일대일 홍보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다. 기자의 지인은 세 군데에서 동시에 ‘러브콜’을 받는 행운(?)을 얻기도 했다.

이들이 치열한 홍보전을 펼치는 이유는 단 하나. 조금이라도 더 많은 시민들을 강의실이나 행사장으로 불러 들이기 위해서다. 물론 자발적인 참가자도 있지만 전 직원이 팔을 걷고 독려하지 않으면 좀처럼 시민들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뿌리거나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공지문을 띄우는 것으론 20~30개의 좌석도 채우기가 버겁다.

사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지역문화계는 일 년 내내 시민들의 문화지수를 높이는 강좌나 행사가 끊이지 않는다. 문화에 대한 안목을 키워주는 강좌에서부터 축제,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의 파일럿 프로그램까지 주제나 성격도 각양각색이다. 많을 때는 하루에만 3~4개의 프로그램이 열릴 정도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상당수의 행사가 ‘그들만의 잔치’로 치러진다. 문화수도를 지향하고 있지만 정작 많은 시민들은 ‘문화’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나마 소수의 적극적인 애호가들이 프로그램에 참가해 문화광주의 자존심을 지켜가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는 경험한 만큼 알게 되고, 아는 만큼 즐긴다고 한다. 문화시민이 되는 첫걸음은 다양한 ‘경험의 장’(場)을 찾는 것이다. 마침 오는 9월에는 광주 디자인비엔날레, 국제영화제, 월드뮤직페스티벌, 아트 광주, 정율성 음악제 등 수많은 페스티벌과 이벤트가 광주를 화려하게 물들인다. 축제는 즐기는 자의 몫이라고 했던가. 올 가을 ‘문화축제’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보자.

〈편집국 부국장·문화선임기자〉

이 영화, 놓치면 후회합니다

광주국제영화제 추천작…‘달빛은 어디에’ ‘블링크’ 등

대만 배우 린즈링·이희준·걸스데이 등 레드카펫 참석

‘이 영화, 놓치지 마세요.’

오는 29일부터 9월2일까지 메가박스 광주에서 열리는 광주국제영화제에서는 모두 92편의 영화가 상영된다. 어떤 영화를 봐야할지 망설이는 관람객들을 위해 영화제 조직위가 놓치면 아쉬울 영화를 추천했다.

허 챠오린 감독의 ‘달빛은 어디에’는 타이완과 중국에서 인도네시아로 건너 가 이방인으로 살아오다 2004년 쓰나미에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옴 진리교 신도를 17년간 지원해온 한 여성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은 기무라 분요 감독의 ‘사랑은 어디에’, 이스탄불 아나톨리안 마을에서 벌어지는 세 가지 이야기를 유쾌하게 그린 알리 반탄서버 감독의 ‘원 데이 올 어나더’ 등도 추천작이다.

엠마 왓슨이 주연을 맡은 소피아 코폴라 감독의 ‘블링링’, ‘포 미니츠’의 크리스 크라우스의 신작 ‘폴 다이어리’도 눈길을 끈다.

지난해 광주영화제 김대중노벨평화상 특별상 수상자인 시에 페이 감독의 ‘블랙 스노우’와 ‘흑준마’ 역시 영화제측이 적극 추천한 작품이다.

그밖에 곡예사가 되고 싶은 탄광 노동자 영미의 이야기를 유쾌하게 그린 북한 영화 ‘김동무는 하늘을 난다’. 올해 4주기를 맞은 최진실의 대표작 ‘편지’ 도 볼 만하다.

올해 영화제에서는 배우들도 만날 수 있다. 개막작인 ‘스위트 하트 초콜릿’의 감독 시노하라 테츠오, ‘적벽대전’ 등에 출연했던 주연 배우 린즈링, 이케우치 히로유키, 후쿠치 유스케가 레드 카펫 행사에 참여하며 30일에는 라마다호텔에서 기자회견도 갖는다.

또 뮤지컬 배우이자 영화배우 원기준, 올해 홍보대사(피스 프렌즈)를 맡은 ‘내 딸 서영이’의 최윤영, 탤런트 이원종과 김명진, ‘넝쿨째 굴러온 당신’의 이희준이 참여하며 아이돌 그룹 걸스데이도 광주를 찾는다.

그밖에 김대중센터 이사장이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도 김대중노벨평화영화상 시상을 위해 광주를 방문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The bling ring’